

출판은 한국과 태국 잇는 스카이 트레인



| 문승현 ·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

급속한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새로운 교통수단 '스카이 트레인'이 태국의 수도 방콕 시내를 자랑스레 달리고 있다. 무더운 날씨, 땀을 흘리며 기다리던 차에 냉방장치가 된 스카이 트레인이 플랫폼으로 들어서면 마음까지 다 시원하다. 방콕을 방문하는 한국인이자라면 꼭 한번 스카이 트레인을 타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異氣를 느껴보라는 것은 아니다. 스카이 트레인 안팎을 우리나라 대기업 광고가 포장하고 있는데, 이국에서 만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임에 틀림없다. 태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제품을 얼마나 애용하는가에 상관없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러나 어디 그것뿐일까? 중국어권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한류韓流'는 태국에도 미쳐 우리나라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던 드라마가 태국인들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 인기 또한 실로 대단한데, 우리나라 가요를 태국인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가사를 로마자로 표기한 인터넷 사이트도 인기다. 과연 한국 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태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국가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국가들보다 낯선 국가다. 태국 역시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은 그동안 서양을 동경하기만 했지, 이웃하고 있는 국가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물론 서구보다는 태국이 우리 한국을 더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앞의 깊이를 파고든다면 서구인이나 태국인이나 오십보백보이다.

우리나라는 88올림픽 개최로 세계인들에게 이름이 알리기 시작했고, 2002월드컵을 통해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뜨거운 정열,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한 나라의 이름은 외교와 스포츠를 통해 알릴 수 있다지만, 한 나라의 문화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책'이다. 책은 어느 문화상품보다도 영향력이 강하다. 책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우리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는데, 2004년 방콕국제도서전과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한국이 주제국가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2004 방콕국제도서전은 현재 태국에 일고 있는 한류열풍의 흐름을 타고, 한류의 영역을 대중문화에서 출판문화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은 분명해 보인다. 방콕국제도서전을 통해 우리 출판문화에도 하나의 '스카이 트레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